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산업경제연구부 이지훈 연구위원  
(063-280-7146, 010-7167-2132)
- **담당본부장**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41)

**보도시점** : 2022년 5월 25일 14:30부터

## 새 정부 산업정책, 전북 혁신성장의 기회로

**국정과제 연계 그린수소, 수소모빌리티, 데이터 등 공약 이행 필요  
도-연구원 협력 속, 공약구체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연관사업 발굴추진**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25일 14시 전북도청 중회의실(3층)에서 「새 정부 산업정책과 전라북도 대응 방향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파악하고 전북지역의 산업공약을 신속하고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-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산업정책실장은 ‘새 정부 지역산업정책과 전북 대응 방향’을 주제로 발표하면서, 향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와 재원 사용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등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지역 내 산업정책을 위한 기획, 집행, 평가의 역량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이어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이 ‘새 정부 전북 공약과 후속 대응 방향’을 주제로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의 산업발전 공약 등을 공유했다.

- 토론자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병수 박사,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응규 박사, 오명준 전(前)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, 양오봉 전북대 교수, 최상호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.
-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, 특히 전북은 탄소 소재와 그린수소, 미래차와 데이터, 첨단의료 등이 지역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전북 발전이 어느 때보다 더 기대된다고 하며,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연관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'투-트랙 전략'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.
- 아울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,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특구 지정 사업에 민간이 투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- 권혁남 원장은 “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”라며,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 산업발전을 위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도정을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한편,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과 전북공약 이행 및 연계사업 발굴은 물론 전북도의 새 정부 정책 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, 5월 30일에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.